

맘물긱

—5월의 세레나데

어젯밤 방공연습을 하느라고 전 시가가 소등을 하여, 칠혹과 같이 캄캄한 길을 더듬으며 집으로 돌아오려니 무엇인지 싹싹싹 뺨에 가 닿았다. 여성지에서 「봄비」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라는 부탁을 받고 비가 와서 나에게 좋은 상(想)을 불러넣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차이라, 옳지 이제 비가 오는 게로구나 하고 적이 기뻐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곧 내가 원고 쓸 때에 흔히 하는 버릇으로 베갯머리에다 만년필과 원고지를 놓고는 이불을 쓰고 누워서 소리없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여 무슨 상을 기다리다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

오늘 아침 늦게야 들창을 흔드는 바람소리에 잠이 깨이니 주룩주룩 처마물 소리가 들린다. 「아직도 비가 그치지지를 않았구나」하여 영창을 여니 앞집 지붕에 하얗게 눈이 주룩주룩 흘러 내린다. 이 눈이 녹아 된 낙숫물을 보자 나는 기분이 좋지 못해졌다. 그것은 나의 기대가 어그러졌기 때문이기도 했으나 그보다도 내가 봄눈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내가 눈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눈길을 밟을 때의 살풋한 그 촉감과 그때 발 밑에서 부는 그 파리소리 때문이었다. 그런데 봄눈은 밀로부터 녹아서 밟으면 철퍽하고 물이 신 위로 튀어 오른다. 철퍽 하는 그 음

향이라든지 그때 발 밑으로 느끼는 그 감각이란 나에게서는 다시없이 불쾌한 것이다.

나는 문을 다시 닫고는 눈이 철철 녹아 내리는 낙숫물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불을 뒤집어 써버렸다. 그랬더니 낙숫물 소리는 멀어졌으나 들창을 흔들며 제치는 바람소리는 여전히 요란하다. 이윽고 이 바람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문득 사라져가는 멜로디와 같이 감미한 옛기억의 한 토막이 내 가슴 속에 올려온다.

봄은 남쪽에서 오느니, 햇살을 타고 오느니 하지만, 내가 어렸던 시절에 나에게서는 북쪽 바람을 타고 왔었다. 겨우내 뒷동산 늙은 소나무 가지에서 바람이 통수를 불기는 했으나 그 소리는 나를 곤한 잠으로 이끌어 주는 자장가는 필지언정 나의 단꿈을 흔들지는 않았다.

그러다 겨울이 거의 깊은 어떤 날 밤 늙은 소나무 등걸이 흰만큼 맹렬한 북풍이 불어 어린 내 잠을 마구 흔들며 고운 꿈조각을 산산히 떨어놓는다. 이 바람은 으레히 해거름에 시작해서 밤이 깊어지면 잤다. 그러면 나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깊은 잠에 빠져 으레 늦잠을 잤다. 이런 늦잠에서 깨이면 앞창에 비친 햇빛이 유달리 따스하고 부시었다. 그리고 그 창을 열면 이웃집 지붕이 어지러이 벗겨져 있었다.

머슴의 시끄러운 소리에 뒷문을 열면 우리 뒷담 용마람도 또한 함부로 말려 장광 뒤로 동댕이쳐 있었다. 나는 머슴이 용마람을 걷어 다시 담 위로 없는 것을 문턱에 턱을 고이고 구경하고 있다가는 큰 경이를 발견하고는 맨발로 뛰어 나간다. 이제 막 머슴이 걷어 올린 그 용마람 밑에 맘물긋 잎이 뽕죽이 눈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날은 해가 저물도록 나는 담 밑 맘물긋 옆에서 흙을 만지며 논다. 할머니의 밥 먹으라는 소리를, 어머니의 감기 들리라는 걱정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방 안에 들어 있지를 않고 바깥으로만 나돌았다.

지난해 봄에 나는 어느 집 뜰에서 맘물굿을 발견하고 그 한 포기
캐어다가 화분에다 심었다. 그랬더니 뿌리가 붓기는 했으나 잎이 보
기 싫게 시들었다. 그래서 싱싱하게 나오는 새잎을 보려고 시들은 잎을
다 잘라 버렸다. 그런데 웬일인지 뿌리는 죽지 않았는데도 아무리 물을
주고, 나중에는 부엌에서 재를 퍼다 거름까지 해주어도 싹이 나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어느 식물학자에게 물어 보았더니 「금년에는 잎은 나오
지 않으나 꽃대궁만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뿌리만 묻힌
빈 화분에 정성을 다하여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며 가을이 다 저물도록
기다려도 종시 꽃대궁은 나오지 않았다.

이불을 차고 밖으로 나와 맘물굿 화분을 살펴보니 아직 잎이 나오지
를 않는다. 그러나 이젠 드센 봄바람이 녹으니 툇마루 양지 쪽에 놓아
두면 멀지 않아 연연한 잎이 나올 게다.

《여성》, 3권 5호, 1938. 5. 1)